



수오재기 | 정약용

(가) 수오재(守吾齋)¹⁾라는 것은 큰형님이 그 집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에 의심하며 말하기를,

“사물이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으로는 나보다 절실한 것이 없으니, 비록 지키지 않은 들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다.”

하였다.

▶ ‘수오재’의 의미에 대한 의문

내가 장기(長鬢)로 귀양 온 이후 홀로 지내면서 정밀하게 생각해 보았더니, 하루는 갑자기 이런 의문점에 대해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다음과 같이 스스로 말하였다.

“대체로 ㉠천하의 만물이란 모두 지킬 것이 없고,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하는 것이다. 내 발을 지고 도망갈 자가 있는가. 발은 지킬 것이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집도 지킬 것이 없다. 나의 정원의 꽃나무·과실나무 등 여러 나무들을 뽑아 갈 자가 있는가. 그 뿌리는 땅에 깊이 박혔다. 나의 책을 훔쳐 없애 버릴 자가 있는가. 성현(聖賢)의 경전(經傳)이 세상에 퍼져 물이나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나의 옷과 식량을 도둑질하여 나를 군색하게 하겠는가. 천하의 실이 모두 내가 입을 옷이며, 천하의 곡식은 모두 내가 먹을 양식이다. 도둑이 비록 훔쳐 간다 하더라도 한두 개에 불과할 것이니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없앨 수 있겠는가. 그런즉 천하의 만물은 모두 지킬 것이 없다. 유독 이른바 나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여 드러남에 일정한 법칙이 없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으나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유도하면 떠나가고, 위협과 재화가 겁을 주어도 떠나가며, 심금을 울리는 고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새까만 눈썹에 흰 이를 지닌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그런데 한번 가면 돌아올 줄을 몰라 붙잡아 만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천하에서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나 같은 것이 없다. 어찌 실과 끈으로 매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 ‘수오재’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

나는 잘못 간직했다가 나를 잃은 자이다. 어렸을 때, 과거(科擧)가 좋게 보여서 과거에 빠져들어 간 것이 10년이였다. 마침내 처지가 바뀌어 조정에 나아가 검은 사모에 비단 도포를 입고 미친 듯이 대낮에 큰길을 뛰어다녔는데, 이와 같이 12년을 하였다. 또 ㉡**처지가 바뀌어** 한강을 건너고 조령을 넘어, 친척과 분묘(墳墓)를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에 달려와서야 멈추게 되었다. 이때에는 나도 땀이 흐르고 두려워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나의 발뒤꿈치를 따라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나는 나에게 말하기를,

“자네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끌려온 것인가? 아니면 해신(海神)이 부른 것인가? 자네의 가정과 고향이 모두 초천(苕川)에 있는데, 어찌 그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했다. 끝끝내 나라는 것은 멍한 채로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을 몰랐다. 그 얼굴빛을 보니 마치 엷매인 곳이 있어서 돌아가고자 하나 돌아가지 못하는 듯하였다. 마침내 붙잡아서 함께 이곳에 머물렀다. 이때 나의 둘째 형님 좌랑공(佐郎公)께서도 그의 나를 잃고 나를 쫓아 남해(南海) 지방으로 왔는데, 역시 나를 붙잡아서 함께 그곳에 머물렀다.

▶ 본질적인 ‘나’를 잃은 삶에 대한 반성

유독 나의 큰형님만이 그의 나를 잃지 않고 ㉢**편안히 단정하게 수오재(守吾齋)에 앉아 계시니**, 어찌 본디부터 지키는 것이 있어 나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큰형님께서 그의 거실에 이름 붙인 까닭일 것이다. 큰형님께서서는 항상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태현(太玄)이라고 자(字)를 지어 주셔서, 나는 오로지 나의 태현을 지키려고 하여, 이것으로써 나의 거실에 이름을 붙였다.”

고 하시지만, 이것은 핑계 대는 말씀이다. 맹자가,

“지킴은 무엇이 큰가? 몸을 지키는 것이 크다.”

고 하였으니, 그 말씀이 진실하다.

드디어 내 스스로 말한 것을 써서 큰형님께 보이고 수오재의 기(記)로 삼는다.

- 정약용, <수오재기(守吾齋記)>

▶ ‘수오재기’를 쓰게 된 까닭



핵심점점

☑ 구별틀이

- 수오재(守吾齋)*라는 것은 큰 형님이 그 집에 붙인 이름이다.
- ‘재(齋)’는 집을 가리키고, ‘수오(守吾)’는 ‘나를 지킨다’라는 뜻이다.
- 나는 처음에 의심하며 말하기를, “사물이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으로는 나보다 절실한 것이 없으니,

- 내게 붙어 있는 것들 중에서 '나'만큼이나 내게 가까운 것이 없으니
- **비록 지키지 않은들 어디로 갈 것인가.**
- 이러한 '나'인 까닭에, '나'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차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나와 뗃어질 수도 떨어질 수도 있는 '나'를 현상적 자아와 동일하게 봤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알고 보면 '나'란 본질적 자아를 가리키는 말이다.
- **이상한 이름이다.” 하였다.**
- '수오재'라는 이름을 붙인 까닭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여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 **내가 장기(長鬚)로[장기는 지역의 명칭이다] 귀양은 이후**
- '장기'가 '나'가 귀양을 온 곳이기에, '장기'는 현실 속에 존재하는 공간에 해당한다.
- **홀로 지내면서 정밀하게 생각해 보았더니, 하루는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 '이러한 의문점'은 '나는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것인데, 어찌 하여 굳이 나를 지켜야 하는가'가 될 것이다
-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 '나'가 귀양지인 '장기'에서 '왜 나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 **나는 벌써 일어나 다음과 같이 스스로 말하였다. “대체로 천하의 만물이란 모두 지킬 것이 없고,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하는 것이다.**
- 주제 의식이 나타난 문장이다. 여기서의 '나'는 본질적인 '나'를 가리킨다. '나'의 본성을 온전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말이다
-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자가 있는가. [밭을 짓는] 밭은 지킬 것이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밭에 밭을 짓는] 집은 지킬 것이 없다. 나의 정원의 꽃나무·과실나무 등 여러 나무들을 뽑아갈 자가 있는가. 그 뿌리는 땅에 깊이 박혔다.**
- 그 뿌리가 이렇게 깊이 박혀 있으니 누가 나무들을 뽑아갈 수 있을 것인가
- **나의 책을 훔쳐 없애버릴 자가 있는가. 성현(聖賢)의 경전(經傳)이[훌륭하고 위대한 성인들의 지혜를 담은 좋은 책이] 세상에 퍼져 물과 불처럼 흔한데 [이처럼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성현의 경전들]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 그러하므로 나의 책 또한 내가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
- **나의 옷과 식량을 도둑질하여 나를 군색하게 하겠는가.**
- 나를 딱한 처지로 만들어 버릴 수 있을 것인가
- **천하의 실이 모두 내가 입을 옷이며, 천하의 곡식은 모두 내가 먹을 양식이다. 도둑이 비록 훔쳐간다 하더라도 [천하의 실과 천하의 곡식 가운데 단지] 한두 개에 불과할 것이니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없앨 수 있겠는가.**

-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이다
- **그런즉 천하의 만물은 모두 지킬 것이 없다.**
- 자문자답의 형식. 다양한 사례를 통해, '천하의 만물은 지킬 것이 없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물질적인 것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빼앗아가도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 **[그러나] 유독 이른바 '나'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여 드나들며[본래의 나를 반환하거나 잃어버림에 있어서] 일정한 법칙이 없다.**
- '나의 본래의 모습을 쉽게 바뀌거나 유혹에 잘 넘어간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 **[내 마음으로서의 나는 본래의 내에]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으나[현상적 자아와 본질적 자아가 서로 떨어져서 목해 하마는 것 같다]도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잠시라도 '나의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 '어느 곳'의 예는 다음 문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이익으로 유도하면 떠나가고,**
- 이익에 눈이 멀어 본래의 내 모습을 잃어버리고
- **위험과 재화가 겁을 주어도 떠나가며,**
- 두려움과 재물에 대한 욕심에 마음의 평정을 잃기도 하며
- **심금을 울리는 고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 자아의 본래적 모습을 잃고 지나친 감상에 빠져 마음의 평정을 깨트리며
- **새까만 눈썹에 흰 이빨을 한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 여인을 향한 욕망에 마음의 평온을 쉽게 빼앗기고 만다.
- **그런데, 한 번 가면 돌아올 줄을 몰라 붙잡아 만류할 수 없다.**
- 마음의 평정을 잃어 나의 본래적 모습을 한 번 잃어버리게 되면 이를 도무지 되찾을 수가 없다
- **그러므로 천하에서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나' 같은 것이 없다.**
- 이익, 위험과 재화, 고운 음악 소리, 미인 등이 너무도 다양한 방식으로 내 본 모습을 흐트리고 마니, 나처럼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이 세상 어디에 또 있을 것인가
- **어찌 실과 끈으로 매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 할 수만 있다면 실과 끈으로 단단히 매고 빗장과 자물쇠로 꽂꽂 잠가서, 무수한 유혹에 쉽사리 흔들리고 마는 이 '나'라는 것을, 단단히 지켜야 할 것이다
- 나약한 존재인 인간은 유혹이나 위험에 쉽게 흔들리므로 철저하게 마음을 수양하여 본질적 자아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 **나는 [이러한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결국] '나'를 잃은 자이다.**

- 글쓴이가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해서, 자신의 본래적 모습을 잃고 말았다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어렸을 때, 과거(科擧)가 좋게 보여서 과거에 빠져 들어간 것이 10년이였다.**
- 과거에 급제하고자 10년을 과거 준비에 몰두하는 바람에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글쓴이가 현재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마침내 처지가 바뀌어**
-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여
- **조정에 나아가 검은 사모에 비단 도포를 입고**
- 높은 벼슬을 하여
- **미친 듯이 대낮에 큰길(大路)을 뛰어다녔는데, 이와 같이 12년을 하였다.**
- 화자가 귀양지에 오기 전까지 12년 간 임금에 내린 벼슬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과거를 공부하던 10년의 기간과 벼슬을 하던 12년의 기간은 모두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던 기간'으로, 현재의 귀양지인 '장기'에 오기 전에, 글쓴이가 세속의 공간에서 세속적인 욕망에 지배를 받던 존재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또 처지가 바뀌어 한강을 건너고 조령을 넘어,**
- 본질을 망각한 채 권력에 취해 있었던 자신에 대한 반성으로, 관직 생활에 대한 후회와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의 감정이 드러나 있다
- '조령'은 '새재'와 같은 말로, '새재'는 '경상북도 문경시와 충청북도 괴산군 사이에 있는 고개'를 가리킨다
- **친척과 분묘(墳墓)를 버리고**
- 친척들과 조상의 무덤이 모여 있는 고향 땅을 떠나
-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에(대나무 '장기를 가리킨다') 달려와서야 멈추게 되었다.**
- 나는 본래의 나를 떠나 10년간은 과거를 미친 듯이 쫓았고, 이후 12년간은 벼슬을 정신없이 쫓더니, 이제 이곳 귀양지에 와서야 비로소 그 미친 달음질을 멈추게 되었다
- 홀로 귀양지에 오게 된 자신의 처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는 '나'를 지키지 못했던 결과로, '바닷가의 대나무 숲'은 글쓴이가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곳이자 글쓴이가 처한 상황을 공간적으로 형상화한 표현이다
- **이때에는 '나'도**
- 이때의 '나'는 '잃어버린 나'를 찾고자 애쓰는 '나'이다
- **땀이 흐르고 두려워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나의 발 뒤꿈치를 따라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 이때의 '나'는 '본래적 자아를 버리고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던 나'를 가리킨다.
- **나는 '나'에게 말하기를,**
- 잃어버린 나를 찾고자 애쓰는 나는, 세속적인 욕망을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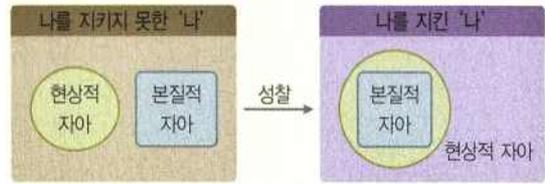
- 구했던 나에게 말하기를
- **"자네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 나는 무엇을 바라며 살았기에 이런 귀양지에 오게 된 것일까
- 이 유배지에 와서야 자신에 대한 성찰이 시작될 된 것이다.
- **여우나 도깨비에게 흘려서 끌려온 것인가? 아니면 해신(海神)이[저 튼 바다] 부른 것인가? 자네의 가정과 고향이 모두 초천(曹川)에 있는데, 어찌 그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했다.**
- 이제 그만 헛것을 쫓는 걸음을 멈추고, 본래의 자아를 회복해야 하지 않겠는가.
- 귀양지의 글쓴이가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있는 대목이다.
- 본질적 자아를 찾고자하는 성찰의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 **끝끝내 '나'라는 것은 멍한 채로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을 몰랐다.**
- 한 번 본래적 자아를 상실한 이상 이의 회복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그 얼굴빛을 보니 마치 엷매인 곳이 있어서 돌아가고자 하나 돌아가지 못하는 듯하였다.**
- 여전히 헛된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만 같았다
- **마침내 붙잡아서 함께 이곳에 머물렀다.**
- 자아의 본래의 자리를 떠났던 '나'를 마침내 본래의 자리로 되돌릴 수 있었다는(헛것을 추구하던 세속적인 마음을 떨쳐내고 비로소 마음의 평온을 얻게 되었다는) 말이다.
- 오랜 성찰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나(본질적 자아)'를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 **이때 나의 둘째 형님 좌랑공(佐郎公)께서도 그의 '나'를 잃고[둘째 형 장부의 자인 본래의 모습을 잃고] 나를 좇아[정향방 자기] 남해(南海) 지방으로 왔는데,**
- 나처럼(글쓴이) 남해 지방으로 귀양을 오게 되었는데,
- 둘째 형도 귀양을 오게 된 것이다. 그 원인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 **역시 나를 붙잡아서 함께 그곳에 머물렀다.**
- 글쓴이와 마찬가지로 둘째 형님 역시 긴 세월 동안 자신의 본모습을 잃고 지내다가 귀양지에 와서야 비로소 본모습을 깨닫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유독 나의 큰 형님만이 그의 '나'를 잃지 않고**
- 큰 형만이 본래의 자신의 모습을 잃지 않고
- **편안히 단정하게 수오재(守吾齋)에 앉아 계시니,**
- 글쓴이의 큰형님이 '나'를 잘 지키는 삶을 성실히 산 결과, 글쓴이나 글쓴이의 둘째 형님과는 달리 귀양살이를 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어찌 본디부터 지키는 것이 있어 '나'를 잃지 않았기 때문**

이 아니겠는가.

- (이는) 큰형님께서 본래부터 자신의 본 모습을 잘 지켜 오셨기 때문일 것이다.
- 이것이 큰형님께서 그의 거실에 [수오재나] 이름붙인 까닭일 것이다. 큰 형님께서서는 항상 말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태현(太玄)이라고 자(字)를 지어 주셔서,
- ‘자(字)’는 본이름 외에 부르는 이름이다
- 나는 오로지 나의 태현(수오재에서 우주의 관을 가리킨다)을 지키려고 하여, 이것으로써 나의 거실에 [수오재나] 이름을 붙였다.”고 하시지만, 이것은 [본마음을 갖추라] 핑계 대는 말씀이다.
- 자신을 지킨 것에 대한 겸손의 표현이다.
- 맹자가,
- “지킴은 무엇이 큰가? 몸을 지키는 것이 크다.”
- 무엇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크게 지키는 것인가. 자신의 본래적 모습을 지켜나가는 일이 가장 큰 일인 것이다
- 고 하였으니, 그 말씀이 진실하다.
- 여기서 ‘몸’은 곧 본질적 자아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로 맹자의 말 속에서 본질적 자아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다. 유교에서 말하는 ‘수신(修身)’에 대한 깨달음이 나타나 있다
- 드디어 내 스스로 말한 것을 써서 큰 형님께 보이고 수오재(守吾齋)의 기(記)로 삼는다.
- 수오재에 대한 한 편의 글로 삼고자 한다.
- 이때의 ‘기(記)’는 ‘한문 문체의 하나’로, ‘어떤 건물이나 산수를 유람한 내용을 적은 글’을 가리킨다.
- 기(記) : **결을 알 중심으로 그 깨달을 기쁘게 하는 한 양식 경험을 통해 사물의 의미를 도출해 낸다.**

☑ 특징

- 갈래: 한문 수필, 기(記)
- 성격: 반성적, 회고적, 교훈적, 자경적(自警的)
- 체험으로부터 삶의 의미를 도출함
- 자문자답을 통해 사물의 의미를 도출함
- 의문에서 출발하여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드러냄으로써 독자의 공감을 유도함



✓ '수오재'의 구성

	주요 내용	구성상 특징
기	'수오재'라는 이름에 대한 의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식적 수준의 의문 제기 • 화제 제시와 독자의 관심 유도
승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 (환경과 여건에 따른 현상적 자아의 변화)	의문의 해소
전	본질적 자아를 소홀히 한 채 살았던 삶에 대한 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 삶에의 적용 비슬길에서의 '나' - 본질적 자아를 지키지 못함. ↓ 귀양지에서의 '나' - 본질적 자아를 지킬 수 있게 됨.
결	'수오재'를 쓰게 된 내력	깨달음의 기록

※ 정야방, <수오재기(守吾齋記)>

- 해제: 이 작품은 '수오재(나를 지키는 집)'라는 당호를 소재로 '나'를 지키는 것에 대한 글쓴이의 깨달음을 보여 주고 있다. '수오재'에 대한 깨달음과 글쓴이 자신의 과거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볼 때, '나'는 욕망이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자아의 본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글쓴이는 질문과 대답의 방식, 구체적 사례 제시를 통해 자신의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 주제: 본질적 자아를 지키는 것의 의미
- 구성
 - [기] '수오재'의 의미에 대한 의문
 - [승] '수오재'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
 - [전] 본질적인 '나'를 잃은 삶에 대한 반성
 - [결] '수오재기'를 쓰게 된 까닭